

지구촌 환경문제와 청소년 참여동향에 관한 연구

천 정 웅*

- I. 서 론
- II. 환경문제의 실상과 청소년참여의 의미
- III. 청소년의 환경활동 참여동향
- IV. 결론: 청소년참여증진의 방향

I. 서 론

환경문제는 그동안 인구의 증가, 급속한 산업화, 화석연료 소비의 증대라는 삼중적 요인의 결과로 그 규모와 정도가 증대되어 왔으며 핵전쟁의 우려와 함께 그 위협의 정도가 치명적이라는 점에서 오늘날의 세계가 직면한 가장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 점에서 환경문제의 해결은 인류사회의 절대적 과제가 되고 있으며 이를 위한 노력이 여러가지 형태로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은 유럽과 세계 각국의 폭넓은 청소년운동 Youth Movement에서 뿐

만이 아니라 정치적·이데올로기적·철학적 견해를 달리하는 청소년들 가운데에서도 널리 확산됨으로써 미래세대로서의 청소년들의 환경활동에의 참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청소년이 환경문제의 가장 큰 피해자이자 미래세대라는 점에서 보면 환경문제는 근본적으로 성인보다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중요하다. 환경문제는 그 특성상 일시적인 노력으로는 해결될 수 없고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서 인류의 진보와 미래를 담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의 환경문제 해결에는 기성세대의 노력은 물론 청소년세대의 적극적 참여가 필요로 되는 것이다. 특히나 청소년은 과거에 집착하지 않고 변화와 변혁에 적극적인 특성을 갖는다.

이러한 인식에서 이글은 지구적 환경파괴의 심각성을 이해하고 이를 개선하고 보존하기 위한 청소년의 주체적 노력과 환경활동에의 참여 동향을 고찰함으로써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청소년의 역할과 참여확대의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오늘날 인류가 직면한 환경위기의 정도와 규모를 이해하고

* 한국청소년개발원 연구위원

쟁점이 되는 구체적인 현안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고 청소년세대에 미치는 환경문제의 특성을 분석한다. 환경문제에 대한 청소년의 역할이 갖는 의미와 관계성을 고찰하기 위한 배경적 논의가 될 것이다. 둘째,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국내외 청소년의 참여동향과 사례를 환경교육에의 참여와 환경운동에의 참여라는 두가지 측면에서 알아본다. 셋째, 이상의 논의와 분석에 입각하여 환경보호와 경제사회적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청소년의 참여증진의 방향을 제시하기로 한다.

II. 환경문제의 실상과 청소년참여의 의미

1. 환경문제의 심각성과 그 실상

“환경쟁점”에 포함되는 문제를 분류하는 데에는 많은 방법이 있는데 환경문제를 생각하면 가장 먼저 환경오염이란 단어를 떠올리기도 하며, 공기, 물, 토양, 불과 관련된 자연적이고 인위적인 문제를 서술하기도 한다. 환경파괴행위를 중심으로 보면 삼림과 종의 소멸, 지구온난화, 각종 폐기물에 의한 공해, 과잉인구 등으로 구분할 수도 있다. 오늘날은 (1) 온실효과에 따른 지구온난화, (2) 성층권의 오존층파괴, (3) 해양생태계의 파괴, (4) 사막화, 토양침식 등의 토양악화, (5) 야생생물의 종의 감소, (6) 산성비, (7) 유해폐기물의 국경이동 등이 중요한 쟁점이 되고 있다.

여기서는 이를 크게 환경악화의 원인과 배경에 관련된 쟁점, 지구공유자원에 관련된 쟁점, 유해물질이 국내에서나 국가간의 국경을 넘어 문제화되거나 자원황폐화로 인해 쟁점이 되는 문제의 3가지로 구분하기로 한다(천정웅, 1995: 47-95). 이는 환경적 쟁점을 특성별로 영역화 한 것으로 소비·인구·빈곤의 문제와 자원황폐화로 인한 환

경문제는 특히 청소년의 환경피해와 관련하여 직접적인 관련을 갖게 된다.

1) 소비·인구·빈곤의 문제

첫째는 소비과잉과 환경악화의 문제이다. 지구환경의 악화가 심화되는 궁극적 원인은 인간의 다양한 활동에 기인한다는 점에서 자원과 에너지를 과잉소비함으로써 야기되는 문제는 지구환경 문제의 원인과 발생 배경으로 중요하게 논의된다. 먹이사슬의 맨 위부분을 차지한 인간의 생존과 번영을 위한 과도한 자원사용과 환경에 대한 무분별한 개발이 오늘날의 전세계적인 환경문제의 원인이 되고 있는 것이다.

지난 몇십년간의 세계경제의 성장율을 보면, 지구상의 재화생산과 서비스 산출량은 1980년의 15조 5천억 달러에서 1990년 20조 달러로 증가했으며, 세계 생산량의 경우는 지난 10년간 1950년까지의 전체 세계 생산량 보다 4조 5천억 달러 이상 증가되었다. 달리 말하여 1980년대 동안 지구경제 산출량의 증가는 인류의 시작으로부터 1950년대까지의 수천년 동안의 산출량 보다 더 많았다는 것이다. 세계의 소비추세는 서비스, 가공식품, 내구재, 그리고 자동차에 점증적으로 의존하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더 많은 쓰레기와 공해를 배출하게 되고 석유, 물, 석탄과 같은 자연자원을 더욱 대량으로 소비할 것이다.

둘째는 인구증가와 빈곤의 악순환에 따른 문제이다. 인구증가와 환경의 상호관계에 존재하는 가장 중요한 문제는 “식량의 부족”과 “환경의 파괴” 문제이다. 그 중에서도 식량문제는 현실적으로 보다 더 절박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지구촌은 현재 전인구의 10%에 해당하는 5억명의 인구가 매년 기아선상에서 허덕이고 있으며, 그 중 매년 수십만명은 굶어 죽어가고 있다. 다가오는

2025년에는 세계인구가 최소한 76억에서 최대 94억이 될것으로 예측되고 있는데 이러한 인구증가에 따른 새로운 농경지의 개간과 초지조성의 확대는 앞으로 지구상의 숲의 황폐화와 사막화현상을 더욱 가중시키게 될 것으로 보인다.

빈곤이 환경문제의 배경과 원인으로 중요하게 논의되는 것은 빈곤이야말로 최대의 환경문제이며 환경파괴의 주원인이 된다는 인식에서 비롯한다. 환경파괴는 현실적으로 “절대 빈곤”이 중심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환경파괴와 직결되고 환경파괴가 다시 “절대 빈곤”을 촉진시키는, 문자 그대로 “악순환”이 되풀이 되고 있다.

2) 지구공유자원의 오염과 파괴

첫째, 지구온난화 현상이란 대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 메탄, 질소, 프레온가스 등의 증가로 인해 우주로의 대기열 방출을 부분적으로 저지하는 온실효과가 발생하여 지구의 지상온도가 상승되는 것을 말한다. 지구온난화 현상이 현재의 추세대로 계속된다면, 지구는 이러한 온실효과 가스들의 축적에 의해 더욱 더워질 것이 예상되고 있다.

기온의 변동은 해수면상승과 환경파괴를 생기게 하고 생물·식물과 인간활동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우선 농업생산성과 식량 사정은 대기온도를 중간 온도와의 일정한 편차 속에서 순환하는 대기의 전통적인 에너지관리 체계에 좌우되고 있는데, 대기온난화는 이 관리체계를 교란시키게 된다. 이에 따라 적도상의 해양에서는 증발습기와 함께 태풍이 훨씬 빈번히 일어나고 강화되어 해안을 강타함으로써 중요한 식량생산지역의 농업생산량 저하, 산호초의 파괴와 삼림의 파괴 및 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해안도시의 침수 등과 같은 큰 재앙이 초래될 것이다.

둘째, 지구생태계를 위협하는 또 하나의 범인은

오존OZONE층 파괴다. 오존층은 전체대기의 10만분의 1에 불과하지만 성층권 35km부근에 얇게 지구를 감싸 태양빛에서 나오는 유해자외선을 차단함으로써 생명체를 보호해 주는 필터역할을 하고 있다. 그런데 냉장고 에어컨 스프레이 등에 널리 사용되는 프레온가스가 이 오존층을 파괴, 남극상공에 구멍이 생겼다. 북반구에서도 이런 현상이 나타나 지난 20년간 성층권오존량이 3% 정도 감소했다.

오존층파괴는 피부암 백내장 등 질환과 농작물 해양생태계 파괴 등 결과가 아주 치명적이다. 자외선(UV-B)은 인간, 동물, 식물, 기타 물질에 많은 영향을 주는 것으로, 지구표면에 도달하는 자외선의 증가는 인간에게 해로운 효과(피부암, 실명, 면역반응 체계의 억압 등)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육상과 해상 생태계의 생산성에 타격을 주게 된다. 더 나아가서, 오존 분포의 변화는 대기권의 온도분포에 변화를 가져오고, 지역적 그리고 지구적 기후변화를 초래한다.

셋째, 생물종의 다양성 감소의 문제이다. 전세계 곳곳의 야생동물이 환경오염에 따른 서식지 파괴와 무분별한 남획으로 멸종 위기에 몰려 있다. 야생동물의 멸종은 환경오염의 상징이자 그 자체로도 비윤리적이다. 또한 천적을 없애 먹이사슬을 교란하고 생태계의 균형을 파괴해 인간에게 재앙의 부메랑으로 되돌아온다는 점에서 더욱 심각하다.

오늘날, 열대림의 급속한 손실과 다른 종의 서식지 파괴로 인해 식물종과 동물종들이 보통과 다른 비율로 사라지고 있다. 1990년과 2020년 사이에, 전세계 생물종의 5~15%정도가 주로 열대림의 삼림벌채로 인해 멸종될지도 모른다(열대림 면적은 지구 총 지표면의 7%에 불과하나 전세계 생물종 반 이상의 종이 열대림에서 서식한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종의 상실은 3십억년의 진화작업을 파괴시키고 있다. 생물다양성의 감소

로 모든 사회경제적, 환경적 혜택이 줄어들게 되고, 긴 안목으로 보면 필요를 충족시킬 차세대의 능력을 감퇴시킬 것이다.

네째, 지구공유자원의 악화와 파괴는 해양오염의 문제와도 관련된다. 해양은 지구표면의 71%를 차지하며, 지학적 순환으로 알려진 대기권, 암석권, 생물권과의 상호작용으로 생명체의 존재를 가능하게 하는 조건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여 왔다. 또한 해양은 동식물의 서식처를 제공하는 기능 외에 인류에게 식량, 에너지 및 광물자원을 공급한다.

그러나 해양은 지구에서 가장 낮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지구상의 모든 오염물질이 모이는 장소가 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폐기물의 이동거리는 이러한 과정이나 분해속도에 좌우되며, 썩지 않은 폐기물은 장거리를 떠돌게 된다. 또한 이러한 해양의 오염은 귀, 호흡기, 피부 감염 등의 발생률을 증가시킨다. 오염된 해산물의 섭취는 곧바로 바이러스성 질병 감염과 콜레라 같은 악성 질병과도 직결된다.

3) 유해물질의 이동오염과 자원황폐화

첫째, 산성비와 대기오염의 문제를 들 수 있다. 산성비는 주로 화석연료(기름, 석탄, 가스 등)의 연소시 배출되는 황 및 질소화합물이 공기중에서 산화반응하고, 대기중의 수분과 결합하여 발생하는 것이다. 이러한 산성비는 상층기류를 타고 5천킬로미터 이상 이동하여 다른 지역의 건물, 교량, 구조물 등을 부식시키고 토양, 수자원 및 생태계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됨으로써 지구적차원의 환경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산성비의 가장 심각한 영향은 산림을 줄이는 것이다. 특히 중부 유럽과 북미 및 캐나다 등지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산성비는 산림의 조로증

세를 유발하는 것은 물론 산림자원 파괴, 수질오염, 토양비옥도 저하, 석제 유적지의 부식 등 생태계를 서서히 파괴하고 있다. 대부분의 식량곡물은 산성토양에서는 잘 자라지 않으며, 곡물의 철분 흡수력 증가는 특정의 경우 인간의 건강에 악영향을 끼친다.

둘째, 유해폐기물의 이동에 따른 환경자원의 황폐화의 문제이다. 유독성폐기물의 위험에 대한 경고는 1950년대와 1960년대에 일본에서 처음으로 나타났는데, 화학발전소에 의해 미나마타만으로 방출된 수은에 오염된 물고기를 수백명의 사람들이 먹고 불구가 되거나 사망하였다. 1970년대 후반에는 미국의 뉴욕, 나이가아가라 폭포의 거주지구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수영장과 지하수로 스며든 위험한 화학혼합물에 노출되었다. 또한 살충제 사용은 근대 농업에 가장 중요한 것으로 새로운 물질이 사람들에게 주는 위험을 잘 말해주고 있다.

셋째, 자연자원의 황폐화로 대표적으로 논의되는 것은 열대림파괴의 문제이다. 삼림지대는 일반적으로 토양과 지역기후, 토양의 수리, 토양과 식생간의 영양물질 순환효율을 안정시키고 보호하며 사람 및 동식물에게는 안식처를 제공하는 기능을 한다. 열대림은 생물학적 다양성(유전적 다양성과 종의 다양성을 포함)을 창출하고 보존하고 있으며, 종의 보호(원주민 포함)를 제공하고 식량과 의약품 및 산업에 쓰이는 물질을 제공하며, 수자원 보존의 원조 뿐만이 아니라 기후에 영향을 끼치고 과학적 연구와 교육을 위한 살아 있는 실험실로서 기여한다.

그러나, 오늘날의 열대림파괴 실정은 그 규모와 속도라는 양측면에 종대한 국면을 노정시키고 있으며, 많은 생물종의 멸종을 초래하고 생물종의 다양성을 심각하게 감소시킨다. 산림황폐화는 열의 유동률, 강우, 달, 행성이 반사하는 태양광선

의 반사율에 변화를 줌으로써 지역적인 기후에 영향을 미치며 이산화탄소, 기타 온실기체를 대기 중에 더 많이 방출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대기 중 이산화탄소의 26-33%, 메탄의 38-42%, 질소산화물의 25-30%는 열대림의 황폐화로 인한 것이라 추정된다.

넷째, 열대림의 파괴 다음으로 가장 눈에 띄는 지표의 문제는 육지의 황사, 특히 사막의 가장자리 근처에서 사막의 확대를 재촉하는 사막화라고 하는 과정이다. 세계의 사막화 현상에 대한 최근 유엔환경계획의 조사는, 건조지역내 관개지의 30%, 천수답의 47%, 방목지의 73%가 어느정도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으며, 전체 지구표면의 35%에 해당하는 지역이 사막화의 위협에 직면해 있고, 인류 인구 1/5의 생존과 관련되어 있다고 한다.

토질저하와 사막화는 계속되는 가뭄으로 더욱 심화된다. 1970년대 후반 이래 아프리카에서 나타난 집단이주는 그러한 극단적인 환경상황에 부딪힌 인간의 비참함을 여실히 보여준다. 1984년과 1985년에는 아프리카 21개 국가에서 3천 - 3천5백만명이 심각한 타격을 받았고, 이들 중 약 1천만이 이주하여 “환경난민”이 되었다. 죽음과 질병, 고질적인 영양실조와 무력감이 계속되는 악조건과 함께 이들을 따라다니고 있다.

지구촌 환경문제의 이러한 실상은 그러나 아동과 청소년세대가 환경파괴의 가장 큰 피해자가 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

2. 환경문제의 특성과 청소년참여의 의미

1) 환경문제의 특성과 지속가능한 개발

환경문제의 특성은 여러가지가 지적되고 있으

나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따로 없다는 것이다. 환경은 한번 파괴되면 많은 비용을 들여야 회복이 가능하거나 아예 원상복구가 불가능하다. 더우기 환경은 어느 개인이나 기업 또는 국가의 힘만으로는 해결될 수가 없으며 모든 인류가 생활 속의 일부터 환경보호를 실천 하는 것에서 해결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환경의 특성은 또한 그 파괴의 효과가 당대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누적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환경파괴의 직접적인 당사자가 받는 피해보다는 그 후손들이 받는 피해의 정도가 더욱 심각하다는 점에 있다. 환경 문제를 이야기할 때는 “인류공동의 자산”이라는 개념이 사용되는 것도 이런 의미에서이다. 지구는 혼자만의 소유물이 아니라 공동으로 가꾸어야 할 인류공동의 재산이며 인간과 환경은 공존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인식과 그에 상응한 태도 변화가 요청되는 것이다.

이러한 인식에서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은 여러가지 수준에서 지속적으로 전개되어 왔는데 특히 1987년 노르웨이의 전 수상인 브룬트란트Gro Harlem Brundtland가 위원장으로 임명된 “환경과 개발에 관한 세계위원회(WCED)”는 3년동안의 조사를 거쳐 “우리의 공동미래Our Common Future”라는 보고서를 발간했는데, 그 기본적인 주제는 바로 오늘날 국제환경질서의 기본축을 이루고 있는 “지속가능한 개발Sustainable Development”이다. 이 개념은 미래세대에게 선택의 여지를 주는 현세대의 개발전략이다. 그리고 이는 환경이 지닌 개발수용능력이 유한하다는 전제하에 “미래세대가 그들 스스로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과 여건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현세대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개발”로 정의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지속가능한 개발” 개념은 이

후의 국제환경협력에서 이념적 가치로 계속 논의되어 왔는데, 1992년에 브라질의 리우 데 자네이로 Rio de Janeiro에서 개최된 “유엔환경개발회의”는 지구환경보전을 경제개발과 조화시키면서 실현하기 위한 “리우선언 Rio Declaration”과 이를 실행할 구체적인 행동강령이라할 수 있는 “21세기 의제 Agenda 21”를 채택했으며, 그러한 제반 조치를 지원할 일련의 제도적 재정적 조정안을 논의하였다는 점에서 지구환경문제에 대하여 가장 종합적인 조직화된 국제적 대응을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청소년의 역할과 관련해서 국제사회에서의 많은 회의를 통해 그 중요성이 제기되어 왔음을 알 수 있는데 유엔에서는 1989년 11월에 ‘아동 권리조약’을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1년후 1990년 9월에는 ‘아동을 위한 세계정상회의’를 개최하였으며 ‘아동의 생존·보호 및 발달을 위한 세계선언’을 실시하기 위한 행동계획을 채택한 바 있다.

2) 청소년의 환경문제 참여의 필요성과 의미

청소년의 환경문제에 대한 참여활동의 필요성은 상호연관된 몇가지 입장에서 검토될 수 있다. 청소년은 환경문제의 최대의 피해자이며 동시에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함으로써 미래세대에게 그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는 현실적인 책무를 지고 있는 존재로써의 의미를 갖기 때문이다.

첫째, 환경악화로 인한 피해는 인류생존의 위기를 초래하고 있는 현실에서 모든 인류가 고통을 받고 있지만 가장 심각한 피해를 받는 것은 아동과 청소년이다. 특히 이들은 가장 심각한 영향을 받으면서도 자신을 보호할 아무런 장치도 갖고 있지 못하다는 점에서 환경문제에 대해 성인보다

훨씬 취약한 여건에 있다.

즉, 전 세계의 수 많은 아동과 청소년들이 매일 그들의 성장과 발달을 저해하는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가난과 경제위기, 배고픔과 무주택, 전염병과 문맹, 환경의 퇴화, 부채의 위기, 그리고 불안정한 경제성장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다. 그들 중에서 매일 4만명은 영양실조, 에이즈를 포함한 질병, 깨끗한 물과 적절한 위생시설의 부족, 그리고 약물남용의 희생자로서 죽어가고 있다(유니세프, 1992). 환경재난으로 대표적으로 논의되는 ‘러브 커널’ 사건의 경우도 미국의 국민학교 학부형이었던 로이 기브스 Lois Gibbs가 자기 아들의 원인모를 질병에 대하여 조사하던 중 아들이 다니는 학교의 토양이 오염되었음을 알고 이 문제를 제기함으로써 세상에 알려지게 된 것이다.

청소년이 환경악화의 피해를 가장 많이 받기는 선진국이나 개발도상국이나 마찬가지이지만 개발도상국의 경우 더욱 크게 취약한 것이 현실이다. 개발도상국에서는 마시고, 씻고 경작하는데 필요한 물을 오염시키고, 먹는 음식을 썩게하여 유아들과 청소년들을 죽게하고 있다. 그들은 우리가 대기중으로 뿜어내고 있는 독성물질에 대해 성인보다 더욱 큰 피해를 받고 있다. 소말리아와 에디오피아에서 일어나고 있는 처참하기 이를 데 없는 기아로 인한 사망은 바로 어른들의 생태파괴로 인하여 비롯된 것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 유엔환경계획(UNEP)과 유엔아동기금(UNICEF)은 「아동과 환경」이라는 보고서의 서문에서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환경의 악화가 아동들을 죽이고 있다. 즉 가난한 자들 가운데서도 가장 가난한 개발도상국의 아동이 그 대상이 되고 있다. 성인보다도 청소년에게 가장 해로운 것이다. 따라서 아동에게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아동의 장래는 어른의 손에 달려 있으며 어른만이 아동을 위해 지구를 보호할 수가 있다. 매년 많은 수의 아동이 죽어가고 있는 것은 인간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지구를 그릇된 방법으로 다루기 때문이다.」

환경문제와 청소년의 관계성의 두번째로 지적할 수 있는 것은 환경문제는 기성인들의 문제이기 보다는 앞으로 살아가야 할 청소년들의 미래와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이며 이 점에서 현재를 살아가는 세대 중에서도 청소년과 아동은 「세대간의 형평」 의무를 지고 있는 동시에 그것의 수혜자라는 점이다. 「세대간의 형평(Inter-Generational Equity)」이란 「국가들은 현재와 미래의 세대의 혜택을 위하여 환경과 자연자원을 보전하고 사용하여야 한다」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 「유엔인간환경선언」의 원칙과 「리우선언」등을 통해 발전되어온 개념이며 유엔 및 관련기관에서 종합한 결의문과 보고서에서도 「세대간의 형평」등에 관한 윤리성이 깔려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이상돈, 1995: 64).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오늘날의 환경은, 사실은 우리의 후손으로부터 빌려온 것이라는 말을 흔히 한다. 지구는 다음 세대에게서 빌려쓰고 있으므로 이것을 그대로 잘 보존 해야 하며 오염된 지구는 방치한 채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면 안된다는 것이다.이 말은 그러나 그 의미의 중요성 만큼 심각하게 고려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지금까지 과소 평가되어 왔음이 사실이다. 「리우 선언」의 원칙 21이 「지속가능한 개발을 성취하고 모두의 밝은 미래를 보장하기 위하여 전세계 청년들의 독창성, 이상, 그리고 용기가 동원되어 범세계적 동반자 관계가 구축되어야 한다」고 규정한 것은 그 의미를 크게 평가할 필요가 있다.

이 점에서 보면, 필리핀에서 있는 벌목금지

요구하는 청소년들의 소송사례는 기성세대는 현재의 환경을 유지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통해 청소년들에게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곳을 물려주어야 하는 책무가 있으며 청소년들은 이를 요구할 권리가 있음을 확인시켜 주고 있다. 1990년 3월 20일 필리핀 생태 네트워크(Philippines Ecological Network)의 대표인 토니 오포사(Tony Oposa)의 자녀 3명 등 필리핀의 모든 지역에 걸친 45명의 청소년(미성년자)은 보호자와 친권자를 대리인으로 하여 그들과 앞으로 태어날 세대를 대리하여 90개의 벌목허가를 내어준 환경자원부 장관을 상대로 모든 벌목허가의 효력을 향후 중단시키도록 요구하였다(이상돈, 1995: 72-74).

이 소송은 현상태의 생태계를 파괴하는 것은 성인들이지만 이로 인한 피해를 입는 세대는 청소년들과 앞으로 태어날 세대라고 주장함으로써 세계적 관심사로 큰 반향을 일으켰으며 1993년 7월 30일, 필리핀 대법원은 이들 아동들이 당사자 자격이 있다고 판결하였다. 이에 필리핀 환경자원부는 1991년 1월 1일부터 벌목허가를 63개로 축소하였고, 상원은 장기적으로 상업적 벌목을 금지할 것을 결의하였다. 이 판결은 「리우선언」에 천명된 「세대간의 형평」의 원칙이 법원의 판결로 구현된 최초의 경우로서 의미가 깊다.

셋째, 환경문제의 특성과 관련하여 청소년 참여의 의미는 또한 환경문제에서 보호받는 것이 청소년들의 권리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청소년들의 책임이라는 점이다. 환경문제가 없는 새로운 지구에서의 생활은 저절로 이루어질 수 없으며 끊임없이 유지해 나가는 데 힘써야하는 것이다. 청소년에게 있어 환경문제의 해결을 위한 참여활동은 단순한 의지의 표명이 아니라 인류전체의 미래를 새롭게 만드는 효과적인 행동과 실천조치를 취함으로써 실제로 실현되어야 한다.

이 점에서 오늘날의 청소년들이 환경문제의 해결을 위한 여러가지 활동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것은 매우 고무적이다. 많은 국가에서 청소년, 지식인 학생들이 환경보존운동에 참여하고 있으며 그것이 바로 국가집단간의 이해를 넘어서 최우선적인 세계적 과제라고 보고 있으며 환경문제의 해결이 평화롭고 창조적으로 살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들의 특별한 관심사임을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세계적인 문제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는 최근의 실정을 생각할 때 더욱 실제적인 의미를 갖는다. 실제로 아동과 청소년시절은 일생을 지배할 환경적 생활태도를 형성하는 시기이므로 아동과 청소년은 환경과 생태계의 보호에 있어서 오히려 성인을 능가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다고 이야기된다.

환경문제의 심각성을 일깨워 준 「침묵의 봄」의 저자 레이첼 카슨은 “아동의 세계는 언제나 생기있고 신선하며 아름다운 감동이 넘쳐흐른다. 유감스럽게도 우리들 대부분은 어른이 되기전에 통찰력과 아름다움, 경이로운 직감을 상실해 버린다.”라고 말하면서 아동의 세계에는 소멸되지 않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자연이 가지는 신비함과 불가사의 함에 눈을 돌리는 감성 즉, 「경이로운 감성 *sence of wonder*」이란 것으로 어른이 되면 권태와 환멸에 빠져 자연이라고 하는 힘의 원천으로부터 멀어지고 보잘 것 없는 인공적인 것에 빠지게 되는데 「경이로운 감성」은 변치않는 해독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III. 청소년의 환경활동 참여동향

환경문제에 대한 청소년참여활동을 보는 기본 시각은 「21세기 의제」에서 제시된 바와 같은 적극적 활동주체로서의 청소년을 고려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할 필요가 있다. 청소년은 다른 집단에 비해 감수성과 활동력이 더욱 민감하고 강하다는 점에서 환경보전에 적극적인 참여는 기본적으로 바람직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청소년시기에서 얻은 체험은 성년이 되고 난 후 사회발전에 중요한 원동력으로 연결되어 진다는 점에서 청소년들의 환경활동에의 참여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1. 청소년역할 강화를 위한 「21세기 의제」

앞서 고찰한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인류사회의 최근의 노력에서도 청소년의 역할의 중요성이 지적되면서 구체적 전략과 방법이 논의되고 있다. 이 점에서 유엔회의가 각국정부에 권고하는 「21세기 의제 *Agenda 21*」 가운데 「지속가능한 개발」에 있어서 지금까지 등한시 되어 왔던 그룹이라고 할 수 있는 여성, 청소년, 그리고 토착민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는 부분을 살펴보는 것이 유용할 것이다(최열, 1993: 94). 「21세기 의제 *Agenda 21*」의 서문에서는 “청소년은 전 세계 인구의 30%를 구성, 환경, 개발에 관한 의사결정 및 프로그램 실행에 청소년을 포함시키는 것이 「21세기 의제」의 장기적인 성공에 중요함”을 강조하고 청소년의 역할을 증진하고 환경보호와 사회, 경제개발의 증진에 적극적으로 관여시키기 위한 프로그램과 지속가능한 개발 속에서의 아동의 역할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먼저, 환경보호 및 경제사회적 개발의 증진에 청소년의 역할증진 및 적극 참여를 위해서는 정책방향을 두가지로 설정하고 그에 따른 목표와 정책수단들을 제시하고 있는데, 정책방향으로는 1) 전세계의 청소년은 그들의 현재는 물론 미래의 삶에까지 영향을 받기 때문에 개발과 관련된 의사결정 과정의 전 수준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하며 2) 청소년들이 안전하고 건전한 미래 -양질의 환경, 생활수준이 증진, 교육 및 고용기회 제공 등- 을 보장받도록 하기 위해 국제사회에서 각종 조치 및 권고안이 제시되어 왔는 바 이러한 쟁점들이 개발계획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목표로는 다음과 같은 다섯가지를 정하고 있다.

1) 각국은 청소년집단의 의견을 들어 모든 수준에서 그들 집단과 정부간 대화를 확대하고 ; 청소년에게 정보를 제공하며, 「21세기 의제」의 실행을 포함하여 정부의 결정에 관한 청소년들의 관점을 제시할 기회를 제공한다. 2) 각국은 연차적으로 비율을 증가시킴으로써, 2000년까지는 50% 이상의 남녀 청소년이 성차없이 적절한 고등교육 및 이에 상응한 교육훈련 및 직업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각국은 현재의 청소년 실업율을 감소시키는 이행방안을 실행해야 한다. 특히 전반적인 실업율에 비해 청소년실업율이 이례적으로 높은 분야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4) 유엔 및 각국은 모든 유엔 과정에서 청소년들이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청소년대표를 포함시키는 메카니즘의 창출을 촉진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5) 각국은 청년, 특히 젊은 여성 및 소녀에 대한 인권 침해를 퇴치하고, 모든 청소년들에게 그들의 개인적, 경제적, 사회적 포부 및 잠재력을 구현하는데 필요한 법적 보호, 기술, 기회, 지원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이러한 목표를 실행하기 위한 정책 수단으로는 각국 정부에 대한 것과 유엔 및 청소년관련 국제기구에 대한 것의 두가지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다. 우선 각국 정부들이 독자적으로 취해야 할 조치로는 다음과 같은 8가지 조항을 규정하고 있다. 1) 1993년까지 환경과 관련된 의사결정 과정에 국제적, 국가적, 지방 수준에서 남녀 청소년들

을 포함시킴으로써 그들의 의견청취 및 참여를 촉진시키는 절차를 확립하여 한다. 2) 환경계획, 프로그램 등의 기획, 평가와 개발관련 의문집에 관한 청소년기구와의 대화를 증진한다. 3) 관련 정책에 반영시키기 위하여 청소년들에게 사회경제적 개발 및 자원관리에 관한 관점들을 제공해주는 국제적, 지역적 또는 지방단위 청소년 회의를 개최하거나 권고안을 고려하여야 한다. 4) 모든 청소년들에게 어디서든 가능한 곳에서 대안적 학습구조 *alternative learning structures*를 제공하는 모든 가능한 형태의 교육기회가 주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교육에 청소년의 경제사회적 요구를 반영하며, 커리큘럼에 환경인식 및 지속가능한 개발에 관한 개념을 포함하여야 한다. 5) 청소년대표를 포함한 관련기구 및 공공기관 등과 협력하여, 대안적 고용기회를 창출하기 위한 전략을 실행하고, 남녀 청년층에 필요한 훈련을 제공한다. 6) 청소년에 관련된 중요한 쟁점들에 관하여 청소년층을 특별히 대상으로 하는 교육 및 인식 *awareness*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하여 청소년 및 민간 청소년기구를 포함하는 담당팀 *task force*를 설치한다. 이러한 담당팀은 최다수 관심집단을 조성하기 위하여 공식, 비공식적인 교육방식을 사용하여야 한다. 전국 및 지방의 대중매체, 민간단체, 기업체, 기타 기관 등은 이 담당팀을 지원하여야 한다. 7) 프로그램, 프로젝트, 네트워크, 전국적 기구 및 민간 청소년단체에 지원함으로써 각 기관이 고유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프로그램의 통합을 검토하도록 한다. 프로젝트 탐색, 설계, 실행, 사후관리 등에 청소년들이 개입되도록 한다. 8) 1968, 1977, 1989년에 채택된 유엔총회 결의안에 입각하여 국제적 회합 참가단에 청소년 대표를 포함시킨다.

또한, 각국정부의 행동 다음으로 유엔 및 청소년

년관련 국제기구는 다음의 조치를 취하여야 함을 규정하였다. 1) 각 기관의 청소년 프로그램을 고찰하고 프로그램간의 협력증진 방안을 모색한다. 2) 현재 청소년의 현황 및 활동들에 관한 정보를 각국 정부, 청소년단체, 기타 민간단체 등에 배포하고 「21세기 의제」의 적용을 감시, 평가한다. 3) 특히 개발도상국의 청소년요구에 중점을 두면서, '국제청소년의 해'를 위해 유엔신탁기금 *United Nations Trust Fund*을 조성하고 기금운용에 있어 청소년대표와 협력한다.

한편, 청소년의 역할과 관련 지속가능한 개발에서의 아동의 역할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는데, 우선 행동의 기반이 되는 정책방향으로 “아동은 지구를 돌볼 책임을 부여받았을 뿐 아니라 개발도상국에서는 거의 과반수 인구를 차지하고 있으며 개발도상국 및 선진국에서 아동은 환경적 퇴보 *degradation*에 의해 심각한 영향을 받고 있다. 그들은 또한 깊은 인식을 가진 환경적 사고의 지지자이기도 하다는 점에서 환경개선을 위한 어떠한 조치이든 그것의 미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고려하여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각국 정부가 독자적 정책에 따라 취해야 할 조치에는 1) 1990년 '아동을 위한 세계 정상회담 *World Summit for Children*'에서 채택된 목적에 입각해서 아동의 생존, 보호 및 발달을 보장해야 하며 2) 지속가능한 개발 및 환경개선을 위한 참여적 과정에서 아동의 이익이 충분히 고려되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를 위한 실행수단으로 특히 환경 및 개발과 관련해서는 각국 정부는 건강, 영양, 교육, 문맹 및 빈곤해소 분야에서 1990년대의 아동관련 목표에 도달하도록 설계된 아동대상 프로그램을 실시하며 아동 및 청소년의 교육기회를 확대해야 하는데 여기에는 환경적 개발적 책임에 관한 교육

을 포함하고 특히 여아 교육에 특별한 관심을 요망한다고 규정한다. 또한 아동 및 부모들이 환경문제에 대한 지역사회의 민감성을 높이는 구심체 역할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학교나 지역 보건소 등을 통해 지역사회를 동원하며 아동의 관심을 모든 환경 및 개발 관련 정책 및 전략에 있어서 지방, 지역 및 전국 차원에서 통합시키는 절차를 확립하는데 여기에는 자연자원의 할당 및 권리부여 *entitlement*, 주거 및 여가요구, 농촌 및 도시지역에서의 오염 및 약물 *toxicity* 통제 절차 등이 포함된다고 밝히고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각국정부의 행동과 함께 유엔과 국제기구의 각 분야에서의 협력과 특히 유엔아동기금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즉, 국제적 지역적 기구들은 이상에서 제기된 분야들에 상호 협력, 조정하여야 한다. 유니세프(UNICEF)는 다른 유엔기구, 각국 정부 및 민간기구와의 협력을 유지함으로써 위에 언급한 조치들에 있어 아동을 위한 프로그램과 함께 아동을 동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상 「21세기 의제」에서 제시되는 내용은 환경문제와 관련한 청소년과 아동의 관계성을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하면서 이들을 위한 국가적 지역적 국제적 행동의 필요성과 실천과제를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이 점은 바로 향후의 지구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환경관리의 대안을 마련하는 일에 오늘의 청소년세대들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인가를 알게해주는 일이기도 하다.

2. 청소년환경활동참여의 세계적 동향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청소년활동 또는 청소년

참여의 유형은 크게 환경교육을 통한 참여와 환경운동을 통한 참여라는 2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으며 전자의 경우는 비교적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후자의 경우는 아직 활성화되고 있지 못하고 그 가능성이 여러가지로 논의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실제적 환경활동은 많은 경우 환경교육과 환경운동을 명확히 구분한다는 것이 어려우며 상호관련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엄밀하게 나누어 이해할 수는 없는 실정이다. 실천적이고 체험적인 환경교육의 경우에는 환경운동의 성격을 갖고 실시되기도 한다.

1) 환경교육에의 청소년 참여동향

청소년기에 행하는 환경교육은 청소년들의 감수성이나 수용도를 보아 가장 효율적인 교육을 할 수 있다는 것 외에도 학교교육의 계획아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환경교육을 할 수 있고 확산효과는 공간적으로 가정과 학교에 시간적으로는 그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 자녀교육에 반영될 수 있을 정도로 크다는 장점이 있다.

환경교육에 관한 최초의 본격적인 국제회의라고 할 수 있는 트빌리시 회의의 최종보고서는 환경교육의 목적을 “인류로 하여금 생물학적, 물리

적, 사회적, 경제적 및 문화적 제요소들간의 상호작용의 결과인 환경의 복잡한 속성을 이해하게 하며 동시에 환경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하며, 환경의 질을 관리할 수 있는 지식, 가치관, 태도, 기능 등을 습득하게 하는 것이다”라고 설명하였다(그린스카우트 출판국 1995 : 272-274).

이 점에서 환경교육은 통합적이며 다학문적인 접근 방법의 사용, 교육과 사회의 통합, 문제해결식 방법의 가능한 많은 사용, 환경교육대상가의 역할 분담, 장기적인 평생교육 등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환경교육과 관련된 여러가지 이론적 논의와 실제적 동향을 통해 보면 환경교육에 있어서의 연령별 강조점과 환경교육 소재는 다음의 표와 같이 볼 수 있다.

이런 인식에서 환경교육의 일반적 동향을 영국, 일본, 미국, 독일, 프랑스 등의 주요 외국의 경우를 중심으로 개관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영국의 경우 청소년환경교육이 가장 발달되어 있는 곳으로 알려져 있는데 각 지방마다 지역활동 센터를 갖고 있으며 그 시설들이 환경을 학습하기 위한 교육센터로 되는 경우가 많다. 청소년을 위한 각종 환경관련 교재가 있으며 지역의 역사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다. 게다가 좀더 활동적인 단체에

참여대상별 강조점과 교육소재

학 년	환경의 강조점	환경교육 소재
취 학 전	자기주변과 교실환경의 지각	아동의 주위환경, 가정환경
국 민 학 교 1 - 3 년	학교환경, 학교운동장	학교환경, 가까운 지역환경
국 민 학 교 4 - 6 년	시·도의 환경과 환경문제	전체 지역환경
중 학 교	시와 국가의 환경 환경문제	국가환경과 환경문제
고 등 학 교 이 상	국가, 국제적인 환경과 환경문제	국가 및 국제환경과 환경문제, 지구적 환경과 상호의존성

서는 낡은 가옥을 개조해 도시의 자연사과 역사를 알게하는 소규모 박물관을 만들고 있다.

영국은 1989년 「교육개혁법」을 제정하였는데 이 법은 환경교육을 학교교육 전반에 걸친 횡교육과정적 요소 중의 주요한 하나로서 포함하여 가르쳐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동 교육법의 “교육과정지침 7”에 의하면, 학생들은 환경에 대한 지식과 이해를 가져야 하며, 환경교육을 통하여 횡교육과정적인 기능을 개발하고, 미래를 위하여 환경을 가치롭게 여기며, 환경을 보전하는데 있어서의 역할을 이해함으로써 환경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함양하도록 되어 있다.

둘째, 일본의 경우는 환경교육이 1960년대 후반기에 환경오염과 이로 인해 발생한 공해병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강화되었으며 1970년에 「학습지도요령」의 일부를 개정하여 국민학교와 중학교에서 공해에 관한 내용을 다루도록 한 것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환경교육에 관한 많은 책자와 교재, 보충 독서 자료들이 제작되었으며, 교사를 위한 환경교육도 교사 재교육 과정 중에 삽입되어 실시되고 있다.

1985년에는 일본 과학원에 환경교육위원회가 설립되었고, 이 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교사 재교육을 계획·실시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교재 및 보조 교육자료는 현에 있는 대학이나 인근 연구소 등에 의뢰하여 제작, 활용하고 있다. 학교 환경교육은 교과를 통한 것 외에 야외 관찰·실습, 화단이나 학교 동산 등에서의 작업·실습, 시청각 교재의 활용, 지역의 봉사활동을 통한 실제 활동 등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셋째, 미국의 환경교육은 「환경교육법」이 제정된 1970년 이후 활발히 전개되었는데, 법에서는 환경교육 과정의 개발, 적용, 보급 및 교사의 연

구활동 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야외 환경교육센터의 설립, 운영에 대한 규정과 환경교육을 위한 각종 연구활동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그에 따라 각 주에서는 환경교육위원회를 설립하고 환경교육 장학사를 임명하여 환경교육에 관한 행정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학교환경교육은 야외 활동, 통합교과적 접근, 문제해결 중심이라는 특징을 갖는다.

일례로, 펜실바니아주는 특히 대학이나 환경교육센터가 중심이 되어 다양한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제작하여 활발하게 활용하고 있으며 ‘워싱턴 주립 환경학습센터’에서는 1주일씩 야외실습을 하고 있다. 주로 동식물의 생태 및 토양관찰, 물의 조사, 구름과 별 관찰 등을 하고 자연을 소재로 한 글짓기와 그림 그리기 등을 통해 환경보존의 중요성을 스스로 깨닫게 하고 있다. 특히 오레곤주나 콜로라도주에서는 야외활동을 중심으로 환경교육을 실시하여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는데 이러한 야외활동에 필요한 경비는 연방정부, 주 정부 그리고 학부모가 공동부담하여, 계획된 학습 내용은 전문 환경교육 담당자와 훈련을 받은 고등학생에 의하여 지도된다(김지태, 1990 : 186).

넷째, 독일의 환경교육은 1954년의 「수질자원보호법」 제정과 거의 동시에 시작되었으며, 1980년대 이후 본격적으로 발전하였으며 의무적으로 4년동안 환경교육을 받아야 한다. 환경주제를 담고 있는 종합과목인 ‘실과’에서는 학교주변의 강, 호수의 수질오염, 도로변의 소음, 주거지의 폐기물 증가로 인한 피해 등을 사례로 들어 수업하고 있다.

독일의 학교 환경교육은 중앙집권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평생교육 기관, 자치활동 기관 등을 통해서 다원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주로 주 정부별로 독립적인 프로그램을 수행하고 있다. 수업에서 다루는 환경교육 주제의 30%는 학교 옥외에서의 교육으로 실시된다. 학교 정원과 숲 그리고 호수, 실험장 등과 동식물 서식처, 박물관, 동물원, 식물원, 자연보호 센터 등이 교육장이 된다.

일례로 독일의 쾰비카우Zwickau에 있는 한 중학교의 학생들은 2년에 걸쳐 물데강River Mulde의 계곡 1.5km를 현장 관찰하는 학습을 한다. 학생들은 계곡의 생물 뿐만 아니라 숲의 특성에 관해서도 조사하여 발표하고, 그 지역에 사람들이 정착한 이후의 역사와 지질사에 관하여 배우고, 지역 내의 쓰레기 매립지와 관광활동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 공공 박물관을 찾아 도움을 받는 등의 학습 활동을 한다(환경처, 1993: 53).

다섯째, 프랑스의 교육부는 일찍부터 환경에 대한 관심을 두어 왔으며, 1950년대부터 ‘백색 주간 White Week’이라는 것을 만들어 산에 갈 기회가 적은 어린 학생들을 위해 산지에서 생활경험을 갖게 하고, 1969년에 ‘생태주간Ecology Week’을 만들어 교외와 바다에서 환경교육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교사를 위한 특별한 코스는 없으나 환경에 대한 지식을 넓히고 책으로는 얻기 어려운 실용적 개념과 기능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는 많다. 교육내용은 환경영향 평가를 중심으로 한 동식물, 생활의 질, 토양, 쓰레기, 에너지, 건강, 해수와 육수, 공기, 안전, 소음 등이다.

프랑스의 학교 환경교육은 초중고등학교와 대학에서 두루 이루어지며, 국민학교에서는 주변에 산재되어 있는 생명체와 환경과의 관계를 관찰하고, ‘해양학급’, ‘삼림학급’, ‘자연학급’ 등을 만들어 자연과 직접 접촉하게 한다. 중 고등학교에서는 환경과 인간과의 관계, 환경의 발전, 자연환경의 이해, 인구과밀에 의한 환경파괴, 도시에서의

주거생활의 문제, 교통기관의 발달에 따른 대기오염과 소음, 그 밖의 환경오염의 문제와 장애, 자연환경의 파괴와 감소 등 구체적 경험과 실용적인 학습을 강조하고 있다. 환경교육에 관한 연구 활동에는 환경부의 지원이 많은데, 특히 환경교육을 다룰 코스의 개발 및 다양한 코스의 인정과 효과적 운영, 새로운 방법, 지침 자료 등의 개발에 힘쓰고 있으며, 대학에서는 ‘물과 법률적 조치’와 같은 통합적이며 학제적인 환경연구 프로그램 등이 개발되고 있다.

이 밖에 유럽의 여러나라의 경우에는 청소년들이 현장학습을 통하여 자연을 직접 경험하고, 느낄 수 있는 환경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환경적으로 특별히 중요한 장소를 단기간 답사하는 환경교육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포르투갈에서는 국민학교에서 각 학교 주변 마을의 인간 생태계를 연구하는 주당 6-8시간 정도의 프로그램을 일년 동안 운영한다. 스웨덴에서는 생태학적으로 중요한 지역을 야외조사 대상지로 선정하여 학생들에게 자연생태계를 조사하고, 경험할 수 있는 최상의 기회를 제공한다. 이러한 현장 체험은 도시의 학생들로 하여금 자연 생태계를 경험하는 데에 매우 효과적이다.

2) 환경운동에의 청소년 참여동향

환경교육에 대한 청소년들의 참여활동에 비해 청소년환경운동은 그 중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이를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수준에는 아직 미치지 못하고 있다. 다만 유럽의 경우 청소년 평화운동의 일환으로 환경운동에 대한 청소년참여는 상대적으로 활발한 경향임을 알 수 있다. 유럽의 청소년운동을 1980년대를 중심으로 보면 내용면에서 오염없는 깨끗한 환경 *pollution-free clean environment*를 위해 참여하였으며 서독의 녹색당 *Greens*

은 생태계문제에 관해 폭넓은 관심을 환기시킴으로써 청소년환경운동을 자극하였으며 기성세대의 환경과파라는 유산에 대해 우려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일반적으로 일본을 제외한 서구의 경우 청소년 활동은 큰 이념이나 정치 보다 자신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범위내에서 일어나는데 기존의 규범에서 벗어나 새로운 것을 추구하고자 하는 것은 기존 사회제도의 한계 때문에 구체적인 단계로 이끌어 가기는 어렵기 때문에 자신의 욕구를 채울 수 있는 집단을 구성하여 행동위주로 변하면서 나름대로 집단이 체계화되는 것이다.

첫째, 영국의 환경보전 활동은 자연애호가들에 의해 시작되었으며, 환경정책의 결정과정에서 큰 역할을 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민간 환경보전 단체로는 '내셔널 트러스트National Trust'가 있다. 이 단체는 문화재와 경관의 보호를 위해 1895년에 창립되어 자선단체로 출발했으며, 정부로부터 많은 재정 지원을 받지만 크게 간섭을 받지 않는다. 현재 회원이 220만명을 넘어서는 거대한 민간조직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소유하고 있는 토지는 약 23만 ha로 영국 왕실 소유지보다도 많은데 최근 이 단체는 청소년들의 환경활동에 많은 관심을 쏟고 있어 주목된다.

1986년 자연보호 활동을 목적으로 설립된 '보존자원봉사를 위한 영국 트러스트Trust'도 활발히 활동을 하고 있다. 현재 연간 약 600여회의 보존자원봉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참가자는 5만에 이른다. 보존 프로젝트는 1주일에서 10일 사이의 프로젝트이며 참가자는 몇 명이고, 어디에서 실시하며, 필요한 경비는 얼마라는 것이 기재된 계절 프로그램이 회원에게 배포된다. 회원 중 젊은이들은 여름방학을 이용해서 현장에서 자연보호 활동을 한다. 실비(식대와 교통비)정도를 보조받아

활동하고 있다(그린스카우트 출판국, 1995 : 96-98).

둘째, 일본의 청소년환경활동은 '자연의 집', '청소년의 집'을 중심으로 실시하는 자연학습프로그램의 예를 들 수 있다. 자연학습은 엄밀한 의미에서는 환경교육의 일환으로 실시되고 있지만 실천적이고 체험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점에서 환경운동적 성격을 갖는다. '자연학습' 활동은 학생들로 하여금 야외관찰 활동을 통해 자연의 이해를 증진시키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으며, 국민학교와 중학교의 상급학교 학생들은 전국 여러 곳에 있는 '자연의 집'이나 '청소년의 집'에서 실시되는 3박 4일의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다.

'자연학습' 프로그램의 내용은 문부성에서 제시하는 「학습지도요령」에 따른 제한을 받지 않고 전문가들에 의해 조직·운영된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국민학교의 경우 3박 4일간 '자연의 집'이나 '청소년의 집'에서 지역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학습을 실시한다. 또한, 각 현마다 자랑할 만한 환경에는 어떤 것이 있으며, 보존해야 할 동·식물의 종류, 자연을 아끼고 보호하는 방법, 환경오염의 원인과 그 실태, 개선 방안 등에 대해 알아봄으로써 자기고장에 대한 관심을 갖게 하고 있다.

셋째, 미국의 민간 환경운동은 영국과는 달리 환경전문가들에 의해 출범되었는데, 현재 많은 민간환경단체가 활발하게 환경보전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은 '시에라 클럽'으로서, 이 단체의 활동 영역은 미국 내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캐나다를 포함한 북미 전역에 파급되고 있다. 미국에 있는 모든 강과 하천 호수가 지역민간환경단체와 자원봉사자들의 철저한 감시체제아래 놓여 있다고 해도 결코 틀린 말이 아니다. 민간환경단체들은 환경문제를 연방정

부나 주정부 그리고 각 자치단체에만 맡겨두지 않고 자진해서 적극 환경보호운동에 나서서 행정당국이 게으름을 피우지 못하게 독려하고 있다.

환경의 질적 개선을 위해 미국의 청소년단체들이 실시한 사례를 보면 미국의 청소년단체들이 지역사회봉사활동을 통해 노리고 성공한 것은 이들의 상생효과 또는 파급효과가 성공적인가에 달려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일찌기 와싱턴 주 부레멜톤시의 스타펜 맥콤은 청년 적십자대표로 식목할 때 플라스틱 백을 덮는 운동을 벌려 성공하여 국민학교 4학년 교과과정에 정식 채택이 되었다. 뉴저지주에서는 청소년단체에서 캠페인을 벌려 교통이 혼잡한 지구에 주차금지 운동을 벌려 성공하였다. 루이지아나주에서는 쓰레기 치우기 운동이 별 소득이 없자 청소년단체별로 쓰레기를 수집 발표하여 여러관계 당국과 학술당국의 관심을 얻고 쓰레기 제거 작업도 성공을 거두었다.

미국의 청소년환경운동 사업의 최근의 사례로는 미국 최대 석유기업 중 하나인 모빌사가 1992년부터 연간 300만 달러 이상을 전국의 청소년 환경보호 활동과 학습활동에 지출하면서 2,000명 이상의 학생들에게 사회참여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것을 들 수 있다. 모빌녹색팀 *Mobil Green Team*으로 알려져 있는 이 프로그램은 여름방학 동안 실시되는데 빈곤가정의 고등학생들을 채용하여 환경보호 활동을 시키면서 보충수업을 시키는 프로그램으로 청소년들의 고등학교 중퇴를 방지하고 중퇴한 학생들이 학교로 다시 복귀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지역사회 환경보호와 미화활동을 실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Mobil Report, 1995).

일례로, 모빌사는 캘리포니아주의 토랜스시의 녹색팀프로그램을 위해 1994년의 5만 달러에 이어 1995년도에는 10만 달러를 배정했으며, 7월

부터 8주간 계속되는 이 활동은 토랜스시에 대한 환경미화 활동과 교육활동이 병행된다. 참가자들의 환경보호/미화 활동으로는 토랜스 지역의 꽃밭 관리, 철로변 청소년활동, 낙서제거 등이 있고 모빌 아카데미로 명명된 학습 프로그램은 학습부진 청소년들인 참가자들에게 학교공부와 직업선택에 관한 연관성을 이해시킬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학과과정과 자아상 계발에 도움이 되는 학과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넷째, 독일의 경우 오늘날 극심한 산업화와 공장, 개인 가정, 및 차량은 공기, 물, 토양을 오염시켰으며 자연에 대한 무분별한 착취로 환경이 현저히 파괴되고 있다는 점이 널리 인식됨으로서 환경운동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독일에서는 환경부 *Department of Environment*를 설치하고 환경보호가 법의 일부로 되어야 한다는 논의도 진행되고 있지만, 아직 환경보호에 관한 법적 조치는 독일에서 요구되고 있는 것에 비해서 훨씬 뒤쳐지고 있다. 생태학적인 문제에 대한 인식은 청소년들 사이에서 훨씬 더 확대되어 왔는데 70년대 말경에 핵에너지의 확산에 대항하는 저항운동이 압력집단에 의해서 폭넓게 전개되었고 환경보존에 사회적인 이슈로 변하면서 많은 청소년단체가 환경운동을 주요 과제로 내세우고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이무춘, 1992 : 42).

청소년집단들은 여가활동을 위해 대도시로부터 벗어나 손상되지 않은 자연으로 이동하곤 했지만 오늘날은 환경오염 및 환경파괴로부터 더 이상 벗어날 곳이 별로 없다. 이에 따라 청소년단체들은 자연을 보존하기 위하여 애쓰고 있으며, 생산과정과 사회의 생태학적 재형성만이 생활기반을 보존할 수 있다는 인식을 창조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것이다(Deutscher Bundes Jugendring, 1993).

다섯째, 그리스의 경우 매우 독특한 환경활동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① 에브로스강River Evros삼각주의 습지, ② 다디다Dadida 숲의 생활권, ③ 해안과 강의 오염, ④ 마을 안에 있는 쓰레기 집하장과 같은 주제의 '6일간 프로젝트'를 실시하고 있는 것은 주목된다. 이 가운데 에브로스 강 삼각주의 습지 연구는 기존의 자연사 연구라는 형태로부터 인간의 이용과 환경적 갈등 지역의 연구라는 형태로 바뀐 것으로서 6일 중의 3일은 야외활동을 하게 된다.

첫째 날에는 청소년들은 삼각주를 방문하여, 그곳의 자연적인 서식처와 동식물의 종의 밀도를 관찰한다. 둘째 날에는 그 결과를 토의하고, 수집된 표본을 이용하여 그 지역의 모형을 만들어 본다. 셋째 날에는 다시 연구지역으로 돌아가서 인간활동의 자취를 기록한다. 넷째 날에는 그들의 결과를 다시 토의하고, 환경적으로 퇴화되는 것을 예방하는 조정이 필요함을 느낀 지역과 그 갈등지역을 확인하게 한다. 다섯째 날에는 삼각주로 돌아가서 어떤 종류의 조정이 필요한가를 토의한다. 여섯째 날에는 결과를 요약하여 제출한다. 그리고 이어서 제출된 보고서에 기초하여 만들어진 20개 정도의 질문에 대답하는 경시대회가 열리고 앞으로 할 일에 대하여 지방 공무원들과 토의를 한다.

3. 우리나라의 청소년환경활동 참여동향

한편 우리나라의 경우 환경교육의 측면에서나 환경운동의 측면에서 아직도 초기단계에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우리 실정에 맞는 다양한 환경교육프로그램의 개발과 교사 양성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특히 환경운동의 경우는 최근들어 활발한 활동이 전개되고 있으나 청소년참여의 실태는 매

우 저조하며 내용적으로는 여전히 모방적이고 답보적인 상태에 있다고 볼 수 있다.

환경교육의 경우 우리나라는 1970년대부터 실시되었으며, 1995년 부터 시행되고 있는 제6차 교육과정에서는 전보다 환경교육을 더욱 강조하여 환경교과가 독립되었을 뿐 아니라 내용을 더욱 구조화시켜 효과적으로 환경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또한 초·중등학교에서 특활반을 중심으로 '과학동산', '과학캠프' 등을 통하여 야외 관찰과 생물채집, 향토연구 등을 방학 동안에 실시하고 있으며 자연보호활동의 일환으로 인근 산이나 개울 등 지정된 장소에 나가 청소, 오물 제거 등의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그러나 전자의 경우 참가 학생은 전체 학생 중 일부에 지나지 않으며 후자의 경우에도 행사에 그치고 있어서 환경교육이 의도하는 교육효과는 크게 기대할 수 없는 실정이다.

환경교육의 주요 영역과 기본내용은 크게 환경의 개념, 환경오염의 종류, 원인, 환경오염의 주요 실태, 환경보전 대책 등으로 구분되고 있는데 제6차 교육과정에서는 그 내용과 영역을 더욱 강화하였다. 주요 내용은 중학교의 경우 환경개념(우리를 둘러싼 환경, 환경의 변화) 환경문제(환경오염, 자원문제, 자원고갈) 환경대책(환경보전과 쾌적한 환경, 환경보전활동)으로 구성하고 있으며 고등학교의 경우에도 환경의 개념, 환경문제와 대책, 환경보전의 3영역에 걸쳐 관련 내용을 다루고 있다.

청소년환경운동과 관련하여 최근들어 환경문제가 소비자단체, 여성단체, 종교단체 등의 활동내용 가운데 빠지지 않는 사업이 되고 있음을 지적할 수 있다. 이들의 활동은 크게 2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수돗물의 질이나 정수기의 품질을 조사하는 등 환경오염을 감시하고 환경관련상품을

시험하는 일과 쓰레기 분리수거 비닐과 합성세제 덜쓰기 등과 같은 환경보호 캠페인을 벌이는 것이 중심이다. 이러한 활동은 대체로 구체적인 실천과 직결되므로 대중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데는 힘을 발휘하지만 환경문제를 사회구조적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단점을 갖는다.

청소년단체의 경우, 최근의 한 연구는 활동분야 별로 보아 제일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는 프로그램이 환경에 관련된 것임을 밝히고 있다. 1994년의 경우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에 가입한 회원단체와 유관기관 34개 가운데에서 11개 단체에서 총 28종류의 활동을 실시했거나 전개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환경전반에 걸친 교육과 실험 등의 내용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걸스카우트 연맹은 보다 구체적으로 물 소음, 토양, 공기 등 세분화된 프로그램을 94년에 실시한 바 있으며 한국보이 스카우트 연맹은 일반적이거나 세부적 프로그램을 매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4-H후원회에서는 94년 7월에 시장바구니 만들기, 폐식용유로 비누만들기 등 실천 가능한 6가지의 활동을 실시하였다.

청소년단체들의 환경활동 프로그램의 실시시기를 보면 서울 YWCA의 환경교육인 녹색여행 프로그램, 한국4-H후원회의 환경 프로그램과 한국우주소녀단의 우주과학캠프와 한국해양소년단의 자연보호운동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특정한 실시일을 정해 놓기 보다는 수시로 활동을 전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밖에 청소년단체협의회 회원단체는 아니지만 청소년환경운동 전문단체로써 최근에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그린스카우트를 들 수 있다. 이 단체는 청소년들에게 환경이 생명의 근원임을 가르치고 환경친화의 생활을 몸으로 익히게 함으로써 자연과 대화할 줄 아는 조화로운 인간을 기르자

는 취지에서 출발한 것으로 각 학교단위로 운동조직을 결속, 이를 가정과 사회로 확대해 나가고 있다. 유니세프에서도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교육하고 있는데 아동을 위한 세계교육사업의 일환으로 국민학생을 대상으로 조직한 '지구촌 클럽'이 그 중 하나다. 이 프로그램은 국민학교 4학년 이상 학생들에게 매주 1시간씩 운영하고 있는 특별활동 시간을 활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단순한 이해 중심에서 탈피해 현장활동을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다. YWCA에서는 비교적 살아있는 교육을 하기 위해 나름대로 노력해오고 있으며, '평택 어린이학농원내 들마울'에서는 자연학습장을 마련해 자연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있다.

IV. 결론 : 청소년참여증진의 방향

이 글은 환경문제에 관한 여러가지 관심 가운데 청소년들이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참여하고 있는 유형과 종류를 주요 외국의 경우를 중심으로 개관하고 우리나라의 참여동향을 알아보고자 시도된 것이다. 이를 위해 지구촌 환경문제와 쟁점의 실상을 분석하고 청소년과 환경문제의 관계와 청소년의 역할에 대해 고찰하였다.

연구 결과에 비추어 청소년의 환경활동 참여의 세계적 추세는 청소년에 대한 환경교육의 강화와 환경운동에의 적극적 참여라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으며 환경문제의 인식 뿐만 아니라 해결을 위해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환경문제의 해결을 위한 청소년활동에서도 형식교육 보다는 현장 중심의 교외활동을 강화하고 있으며 청소년단체나 자치적인 청소년환경활동의 경우에도 거의 모든 문제에 관심을 갖고 활동을 하고 있는 경향이다. 우리나라에서도 환경문제를 생각하는 청소년단체와 시민 모임이 늘어나는 추세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전체적으로 보면 아직 까지도 각급학교에서 환경담당부서나 교사 또는 특별조직이 있거나 환경감시계획 또는 환경교육 프로그램이 수립돼 있는 경우가 찾아보기 어려우며 청소년단체의 활동에서도 환경활동은 많은 관심이 기울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용에 있어서는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과 캠페인 중심의 초보적 단계에 놓여 있으며 전문적인 지도자는 매우 부족한 실정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인식에서 청소년의 환경활동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몇가지 방향을 제시하면서 결론을 맺기로 한다.

첫째, 청소년들의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을 보다 새롭게하고 강화할 필요가 있다. 현재 각급학교나 청소년단체 등이 환경문제의 심각성을 이해하고 이를 보존하기 위한 대책 방안을 마련하려고 하지만 아직까지는 피상적이며 소극적인 차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청소년들이 일상생활과 지역사회의 환경문제에 대해 관심을 갖도록 함으로써 환경문제의 실상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이고 직접적으로 인식시키는 활동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 환경파괴의 본질은 인간의 소비활동과 생활양식에 깊이 관련되어 있다는 점에서 청소년 자신들이 살고 활동하고 있는 생활주변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에 관심을 갖게 하고 환경문제에 대한 각자가 가지고 있는 입장을 파악하는 것은 매우 효과적일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청소년들은 환경교육에 열성을 가지고 참여하고 적극적인 환경활동참여를 위한 여러가지 능력을 함양할 필요가 있다. 청소년들이 환경정책에 직접 영향력을 행사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지만 지역적인 차원에서 환경활동에 참여해 관청이나 부모, 시민모임들의 관심을 환기시키는 일은 가능한 일이다. 이 과정을 통해 얻은 지식, 의견, 판단 등은 그들의 정치적 논의의 중요한 부분이

될 것이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자신의 생활주변, 또는 고장의 변화 등에 대한 문제를 인식하게 되면 환경보전의 필요성을 직접적으로 알게 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실천적으로 행하게 될 것이다. 청소년들의 직접적인 참여활동은 그 과정을 통해 상이한 이해관계나 정책변화과정 등에 대한 통찰력을 얻게될 뿐 아니라, 관심사나 욕구가 달라 서로 갈등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도 알 수 있으며 민주적인 방법에 의한 환경개선의 방법을 습득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그 의미가 크다.

셋째, 환경교육의 체계적 실시와 현장중심의 활동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 각급학교에서는 대상을 보다 세분화시키고 교과과정에서도 보다 심도있게 교육할 필요가 있으며 청소년단체 등에서는 주제를 정하여 체계적인 환경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환경문제를 전담하는 교사와 지도자의 확보는 이점에서 필수적이다. 교사에 대한 각종 연수나 청소년지도자 교육 및 자격 면허 취득을 위한 교육기회에는 환경교육 강좌를 포함시킬 필요도 있다.

또한 현장 중심의 환경교육과 활동을 위해서는 현재 서구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성공적 활동의 예를 우리나라에 보다 활발하게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신토불이라고 하여 우리농작물을 먹자는 운동이 최근에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는데 이러한 일은 많은 도시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에게 환경교육과 더불어 자연의 고마움을 알게하는 효과도 있을 것이다. 재활용 *Recycling*의 경우에도 이미 오래전부터 많은 학교와 단체에서 실천하고 있는데, 이제는 단순한 폐품수집의 단계를 지나 바람직한 문화유산의 보존으로까지 그 역할이 강조되어야 한다(Hann, 1991 : 12).

넷째, 청소년단체를 통한 환경활동이 강화되어야 한다. 청소년환경운동은 관련부처나 공공기관

에서 여러가지 방식으로 시행할 수도 있지만 이는 환경운동이 가지는 예상치 못한 이데올로기적 경향성을 생각할 때 경계할 필요가 있으며 그 보다는 자발적 결사체가 중심이 된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활동을 적극화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청소년을 위한 환경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일에는 유엔이나 국제사회에서 권고하는 내용들을 지역사회나 청소년단체를 중심으로 실천하는 것이 중요한 경험이 될 것이다.

이 점에서 1960년대의 미국 청소년들이 카슨(Carson)여사의 경고 「침묵의 봄 *Silent Spring*」을 예방하기 위해 청소년단체를 통해 지속적으로 환경활동과 각종봉사활동을 실천함으로써 환경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보존하는 노력을 기울였던 일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오늘날과 같이 환경문제가 더욱 심각한 인류적 위기로 대두되고 있는 이때 청소년들의 무한한 감수성과 정열의 에너지를 지구촌 환경보존을 위한 활동에 힘써야하는 일은 한국의 청소년단체와 지도자들이 지금 이시대에 해야 할 사명일 수도 있다.

다섯째, 청소년의 환경활동에의 참여 활성화는 정부나 지역사회의 다양한 지원이 있을 때 소기의 성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특히 보다 효과적인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서는 정부와 지역사회의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청소년환경활동을 담당할 부서와 기구의 지정 및 운영의 강화가 요청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환경부 뿐만 아니라 문화체육부, 교육부, 보사부 등이 보다 유기적으로 협조하고 청소년단체는 물론 환경운동단체와 소비자단체 및 여성단체 등에서도 상호간 긴밀히 협력함으로써 보다 많은 관심과 지속적인 활동전개가 있어야 할 것이다.

청소년들의 환경활동참여는 정부나 지역사회의 관심과 다양한 지원이 있을 때 더욱 성공적인 결

실을 맺게 되고 활동참여의 내용을 풍부하게 하고 좀더 전문화 시킬 수 있다. 또한 참여 청소년들은 새로운 기술과 경험을 얻게 되고 좀더 체계적인 사회활동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어 지역사회에도 큰 이익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아동과 청소년은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환경운동의 가장 효과적이며 강력한 주체가 될 수 있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청소년들이 넓게는 미래의 세계시민이고 이나라의 장래를 담당할 주체라는 사실을 구대여 강조하지 않더라도 청소년시기 부터 환경보전적인 생활자세를 실천적으로 체득하는 일은 장래 우리의 환경적 상황을 지금보다 건강하게 하도록 담보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이 점에서 지구상 *Earth Prize*의 창설자이자 지구연합 *United Earth*의장인 크라에스 노벨 *Claes Nobel*의 지적은 매우 시사적이다. 그는 환경보전적인 새로운 지구질서를 위해서는 비즈니스의 힘, 미디어의 힘, 여성의 힘, 청소년의 힘, 지구윙리의 힘의 5가지 분야가 긴요하다고 보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청소년의 힘」을 강조하고 있다. 그는 청소년들은 현재에는 세계인구의 50%를 대표하고 있으며 미래에는 100%를 대표한다고 보고 지금까지도 청소년들은 세계의 큰 일들에서 그 목소리를 내는 일은 거의 없지만 미디어를 통해 점차 세계의 상태에 대해 알게 될 것이라고 전망한다. 더우기 청소년들은 선입견을 갖고 있지 않으며 심성은 구체적으로 주조되어 있지 않으며 현재 있는 그대로 문제를 수용하지도 않는다고 보고 청소년들은 변화를 요구하고 수행할 것이라는 점에서 청소년들 자체가 이러한 변화의 주체라고 주장하고 있다(Claes Nobel, 1992: 207-211).

따라서 청소년은 이 지구의 현재이며 동시에

미래라는 것을 확신할 필요가 있다. 청소년의 환경활동에의 참여가 더욱 크게 요구되고 청소년을 중심으로 한 환경운동의 가능성이 논의되는 이유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청소년들은 환경활동에의 참여에 있어 수반되는 현실적 제약을 극복하

고 우리의 미래상에 맞게 전 지구적인 사회적인 그리고 환경적인 개혁을 각자의 사회안에서 실천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일은 중요한 과제로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김동위. 1993. “환경보존을 위한 청소년지도의 교육적 관련 요인”, 「청년연구」, 제15집.
- 김병완. 1994. 「한국의 환경정책과 녹색운동」, 나남
- 김명자. 1991. 「동서양의 과학전통과 환경운동」, 동아출판사
- 김용근. 1994. 「우리들은 환경파수꾼」, 푸른나무
- 김지태. 1990. “한국의 환경교육 담당교사 연수 방안”, 「한국의 환경교육」, 한국환경교육학회편, 교육과학사
- 그린스카우트 출판국. 1995. 「학교와 환경교육」, 광문사
- 그린스카우트 편역. 1995. 「어린이와 환경교육」, 광문사
- 대륙연구소. 1990. 「환경보전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 신현국. 1994. 「시민을 위한 환경이야기」, 김영사
- 이무춘. 1992. “환경보존을 위한 청소년활동”, 「새로운 세계의 가치관으로서의 환경」,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심포지엄 자료
- 이상돈. 1995. 「지구촌 환경보호와 한국의 환경정책」, 대학출판사
- 유니세프. 1992. 「1990년대 한국 어린이/청소년을 위한 참고 자료집」
- 천정웅. 1995. 「지구환경체제의 정치경제학」, 한울
- 최도영. 1993. 「지구촌 환경정보」, 나남
- 최 열. 1993. “환경과 자원보존을 위한 청소년 활동”, 「청년연구」, 제15집
- 환경처. 1993. 환경교육 연수교재
- Coleman, Daniel A., 1994. *Ecopolitics : Building a Green Society*, New Jersey : Rutgers University Press
- Deutscher Bundes Jugending. 1993. *Youth Organizations in the Federal Republic of Germany*. Bonn
- Hann, Gerhard de. 1991. “동구의 경험과 개발도상국의 환경교육촉진 가능성”,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에서의 환경교육강화방안」 제2회 한·독 환경교육학술회의 자료, 한국 환경교육학회
- Mathews, Jessica Tuchman(ed.), 1991. *Preserving the Global Environment : The Challenge of Shared Leadership*, New York : W.W.Norton & Company
- Milton s. Eisenhower Foundation. 1990. *Youth Investment and Community Reconstruction*, Milton S. Eisenhower Foundation
- “Mobil Donates \$100,000 to Torrance Youth Program.” *Mobil Report*, June 1995
- Nobel, Claes, “A New Earth Order”, in Kirdar, Uner(ed.). 1992, *Ecological Change : Environment, Development and Poverty Link*

ages, New York : United Nations. pp. 207-211

Office of Educational Research and Improvement. *Youth Indicators, 1993*. Washington D.C : US Department of Education.

Vig, Norman J. and Michael E. Kraft(eds.), 1990, *Environmental Policy in the 1990s : Toward a New Agenda*, Washington, D.C. : A Division of Congressional

Quarterly Inc.

World Resources Institute, 1995, *World Resources 1994-1995*, New York : Oxford University Press

Zacher, Mark W.,(ed.) 1993. *The International Political Economy of Natural Resources*, Vol.II, No. 2, Vermont : An Elgar Reference Collection.